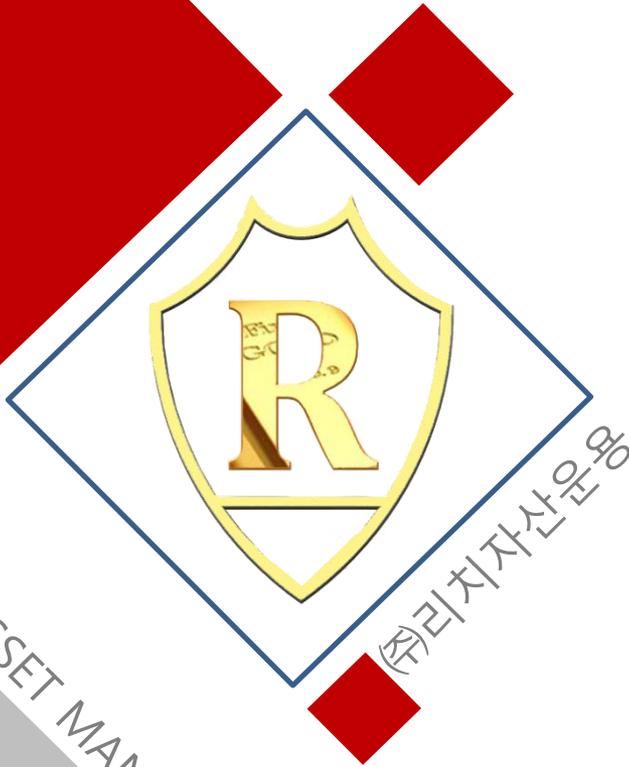


【판매사 사내한】

리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RICH ASSET MANAGEMENT CO., LTD.

- ❖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전략은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에서의 참고 및 예측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투자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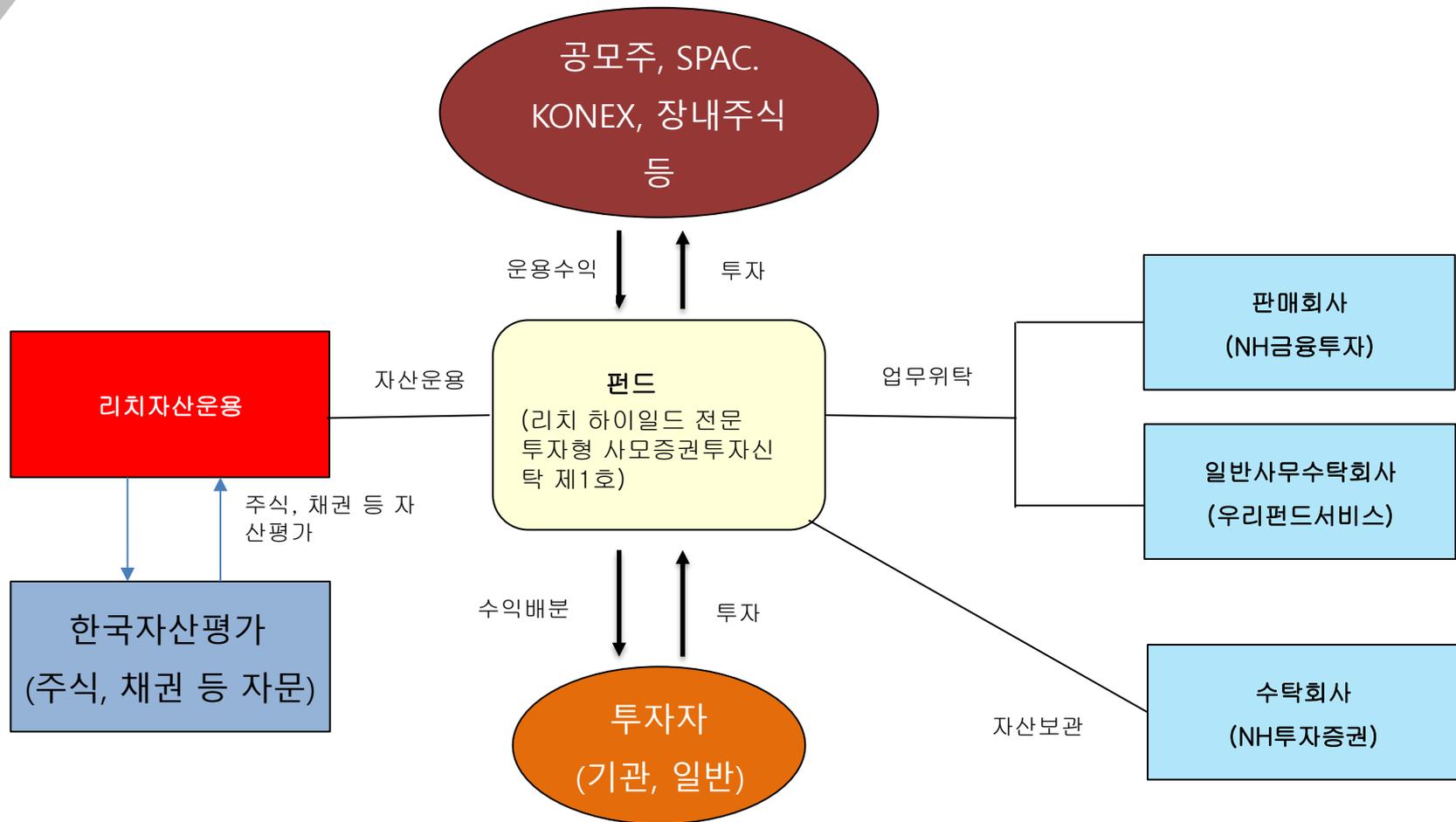


1-1. 펀드개요

상 품 명	- 리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펀 드 목 표	- "국내채권"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 45%이상 투자와 "유망 공모주" 투자를 병행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추구
펀 드 형 태	- 투자신탁형, 채권혼합형, 사모형, 추가형, 개방형
자 산 의 운 용	- 국내채권 60%이상 (BBB+ 이하 채권 45%이상 포함) - 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자산 총액의 40% 미만(주식 범주에는 IPO, SPAC, 코넥스 상장 주식도 포함)
상 품 특 징	- 공모주(IPO & 유상증자) 청약 시 10%이상 우선배정 혜택으로 수익제고 ☞ 전체 공모주 투자비율은 자산 총액의 40%이하 - 채권의 투자는 BBB+ 이하 등급의 하이일드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이자소득 추구
신 탁 보 수	- 총보수 연 1.5% (운용사: 1.175%, 판매사: 0.2%, 신탁사: 0.1%, 사무관리사 0.025%)
성 과 보 수	- 성과보수금액 : Max [초과수익금액 × 성과보수율, 0] - 초과수익금액 : 투자신탁 종료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 Hurdle 금액 - 성과보수율 : 10% (Hurdle0%적용)
펀 드 위험 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매 입 방 법	-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매입
환 매 방 법	- 제3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 제4영업일) 지급



1-2. 펀드개요





2-1. 회사개요

회 사 명

(주) 리치자산운용 (RICH Asset Management Co.,Ltd)

설 립 일

2019년 5월 27일

등 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가.]에 따른 등록업무)

대표이사

박 인 호

회사주소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504호
(여의도동, 태양빌딩)

대표번호

TEL : 02-780-8008 / FAX : 02-780-5500



3-1. 운용전략 - 공모주

발행시장 직접 참여

- 2018년 하반기 대규모 신규 상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발행시장에 직접 공모가로 시장 참여

안정적인 수익구조

- 채권형 펀드의 안정성에 공모주 투자의 수익성을 가미한 안정적 수익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 달성

- 시장 상황에 민감하지 않게 비교적 안정된 수익률 실현

- 1) 시장 조성기 - 200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차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공모주 수익률은 상장일 증가 기준으로 매년 (+)수익률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
- 2) 시장 상승기 - 시장 상승기에는 코스피 지수대비 상승폭이 확대
200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공모주 수익률은 증가 기준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공모주 수익률	67.9	38.6	34.2	12.7	52.1	22.1	30.2	22.6	37.3	41.2	24.1	26.1	33.43	34.04
공모건수	77	60	66	42	66	98	78	28	41	73	57	69	79	64.15

- ◆ 2015년 공모주 수익률은 24.3%로 KOSPI 수익률(2.4%)을 크게 상회하였음.
유가증권 시장에 16개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102개 종목이 상장 하였으며 코스닥 종목 중 45개 종목은 SPAC 상장 이었음.
- ◆ 2015년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12개사로 급증했으며 2014년 4월 기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제도를 개편한 이후 대폭 확대되어 지난 10여 년 간의 기술특례상장 기업수에 육박함. 기술력과 성장성은 크지만 현재 수익성이 낮아 상장이 어려웠던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 실현에도 도움을 줌.



3-1. 운용전략 - 공모주

3. 리치자산운용의 공모주 투자 강점

* 공모주 부문에서 당사만의 특화된 투자 프로세스 보유



* 다년간의 공모주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모주 투자 수익 극대화

- ◆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공모주 투자를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평가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초과 수익 추구
- ◆ 당사는 섹터매니저가 담당 섹터 내 신규 공모주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회사 차원에서 공모참여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어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주력

* 공모주 부문에서 당사만의 특화된 투자 프로세스 보유

- ◆ 당사는 공모주 상장 당일 매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단, 일부 종목에 한하여 보호예수 전략 구사 계획
- ◆ 하이일드 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에 의해 적정한 물량 확보 가능



3-1. 운용전략 - 공모주시장

□ 공모주 시장 전망

'대어 실종' 상반기 IPO시장..하반기 '알짜' 대기

남궁영진 기자 | nkyj@seoulfn.com | 승인 2019.07.01 15:53 | 댓글 0

상반기 공모 기업 3곳 ↓공모액은 40% ↑-기술특례상장 두각
하반기엔 천억대 중형-유망 기업 대거 포진..."양적·질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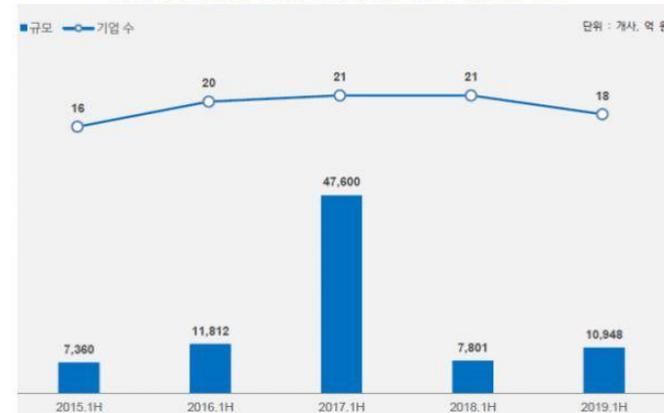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은 전년 대비 공모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대어'(大魚)들이 잇따라 상장 의지를 접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하반기에도 대형 기업들의 존재감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1000억원 이상의 알짜 기업들이 대거 출사표를 내밀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그간 공모주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무형자산 중심 유망 기업들이 등장, 시장은 양적·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와 IPO 전문업체 IR큐더스에 따르면 상반기 IPO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18곳(코스피 2곳·코스닥 1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1곳)보다 3곳 줄었지만, 전체 공모 규모는 1조948억원으로 40.34% 증가했다.

최근 5개년(2015~2019) 상반기 IPO 기업 수 및 공모 규모



자료=IR큐더스

올 상반기엔 기술특례로 증시에 출사표를 내민 기업이 유난히 많았다. 웹캐시가 국내 핀테크 1호 상장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올해 IPO 시장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후 여행, 바이오, 2차전지,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했다.

2분기에는 바이오 기업의 상장이 집중되며 상반기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했다. 이 기업들은 모두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상반기 상장한 18곳 중 이노테라피, 셀리드, 지노믹트리, 수젠텍 등 7개 기업(39%)이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적용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아마그린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이오 업체다.

하반기에도 IPO시장에서 대형 기업들의 존재감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장 기업이 하반기에 더 두드러지는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나고, '알짜' 기업들의 출사표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3-1. 운용전략 - 공모주시장

□ 공모주 시장 전망

커지는 불확실성에 하이브리드 헤지펀드 뜬다

코람코, 부동산·벤처투자 동시에 하는 펀드 설정
채권형 펀드에 주식 담으려는 움직임도
"다양한 자산 투자로 목표 수익률 높일 것"

등록 2019-06-20 오후 8:55:32
수정 2019-06-20 오후 8:55:32

가 가

설정액 상위 헤지펀드 단위:억원			국내 헤지펀드 현황	
운용사	펀드명	설정액	· 설정액	· 개수
NH투자증권	NH 애플루트 리턴	5968	31조 8000억원	2688개
교보증권	교보증권 Royal-Class 채권솔루션	4096		
미래에셋	미래에셋 스마트Q 아비트리지	3462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하이파이(HF)채권투자SaleR1Y	3158		
삼성자산	삼성다변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670		
			· 운용사	172곳
			· 평균 순자산 규모	119억원
			※ 5월 31일 기준 자료:업계	

[이데일리 이광훈 기자]

- 이변주 로또1등 번호6자리' 무료제공기 "충격"
- 로또1등 "이렇게"하면 꼭 당첨된다! 안하면 큰 손해!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하나의 펀드가 둘 이상의 자산에 투자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사모 헤지펀드(hedge fund)가 최근 잇따라 설정되고 있다. 부동산이나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주식 비중을 더하는 경우다. 저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단일 자산만으로는 높아진 투자자 눈높이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운용은 최근 부동산 실물 대출에 벤처투자를 함께 하는 펀드인 '코람코솔리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설정했다.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70%는 부동산 실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다.

목표 수익률은 연 10%이다. 최근 설정된 부동산 펀드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다. 벤처투자는 상장 전 '프리 아이피오(Pre IPO)' 단계를 중심으로 회수 방안이 합리적인 자산을 선별해 투자한다. 만기가 길고 유동성 제약이 있는 부동산 펀드의 단점을 주식으로 보강하게 되는 셈이다.

코람코운용은 비슷한 시기 부동산 PF와 상장 리츠(REITs), 공모주를 함께 투자하는 펀드도 설정했다. 마찬가지로 여러 자산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지안자산운용도 지난 달 말 '지안 멀티에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설정했다. 이 펀드는 국내외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귀금속 등에 복합적으로 투자한다.

◇ "불확실성 지속...하이브리드 펀드 트렌드 될 것"

이는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이나 채권에서 예전만큼 수익을 낼 수 없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솔리드 펀드를 설정한 코람코운용은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대체투자를 전문적으로 설정해오던 운용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관련 펀드 수익률이 과거 기대치보다 내려온 상황"이라며 "부동산 PF 대출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고, 전환사채(CB)나 전환상환우선주(RCPS) 등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여보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2. 운용전략 - 채권

펀드 기본 포트폴리오 전략

- ▶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채, 은행채 및 회사채 등으로 투자하여 기본 이자수의 확보
- ▶ 펀드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의 제고를 동시에 추구
 - 국채, 통안채, 은행채 및 A- 이상 우량 회사채 투자로 신탁자산의 유동성을 기본 확보
 - 분리과세 펀드의 요건을 위하여 BBB+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투자하여 이자수의 제고
- ▶ BBB+ 이하 회사채 투자 전략
 - BBB+ 이하 채권 POOL을 구성하여, 종목 선별 투자를 통한 엄선 투자
 - BBB+ 위주의 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에 주력하며, 가능한 범위 내서 자산의 만기를 길지 않은 자산위주로 우선 편입하여 신용위험을 통제하고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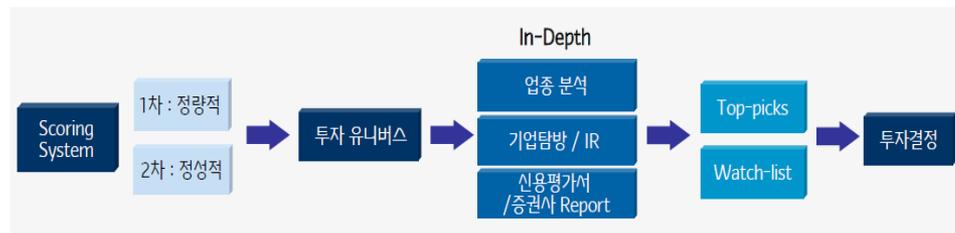
예상 포트폴리오 구성

분 류	비 중	비 고
국고/통안채/은행/우량 회사채	채권 60% 이상	유동성 확보 및 A- 이상 회사채
BBB+ 이하 회사채		BBB+ 위주의 투자
공모주(주식), SPAC	주식 40% 미만	공모주 투자 및 유동성
합계	100%	



3-2. 운용전략 - 채권

종목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



● 채권 종목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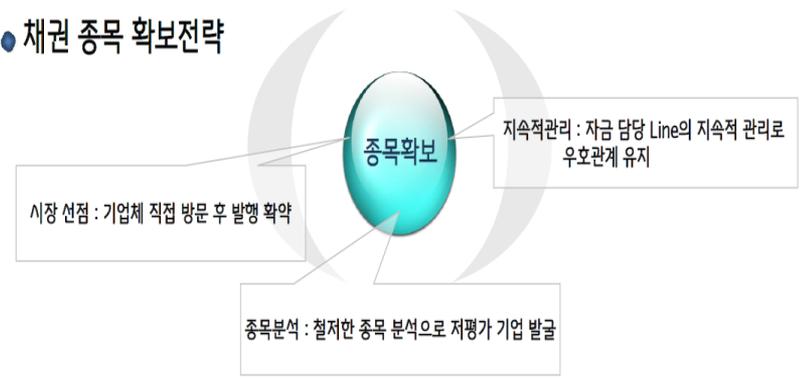
재무적 분석기준

- 산업내 사업지위
- 영업이익 및 순이익 발생기업(최근2년)
- 매출액의 안정적 흐름

질적 분석기준

- 계열사의 영업지원 가능성
- 안정적인 기업 경영 구조
- 업황의 호전 가능성
- Risk가 있는 사업 확장 여부

● 채권 종목 확보전략



Scoring System

전문화된 Credit 애널리스트 2명

정량적 분석

- 1) Positive/Negative 복합 방식의 점수산정으로 재무제표 반영
- 2)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 주요 지표 재무비율 분석

+

정성적 분석

- 1) Negative 방식의 점수차감방식
- 2) 사업 전망에 대한 분석
- 3) 경영 리스크에 대한 분석
- 4) 재무 유연성에 대한 분석



3-3. 운용전략 - SPAC

SPAC의 개념 및 효과

SPAC이란 ?

- 주식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 다른 기업 (주로 비상장기업)을 M&A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임



- 자산이 현금으로 구성된 우량한 셸(Shell)로서 M&A 대상기업에게 효과적인 자금수단
- 거래소 상장을 위한 통로로 활용

SPAC 구조



투자자 입장

- SPAC별 구조 이해
- 공모주주로 참여
 - 상장후 필요시 장내 매각 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 원금회수 가능
- M&A이후 매각
 - 기업가치 증대에 따른 주식가격 상승 기대



최근 SPAC 동향



심사승인 SPAC의 추가하락 : 적극적인 합병 추진 영향으로 합병 발표 이후 추가하락



성장기업 위주의 합병대상 기업의 SPAC 수요증가 : 소프트웨어, 모바일 게임, 바이오 관련 기업



2012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SPAC 가치평가산정 자율화로 합병가치 산정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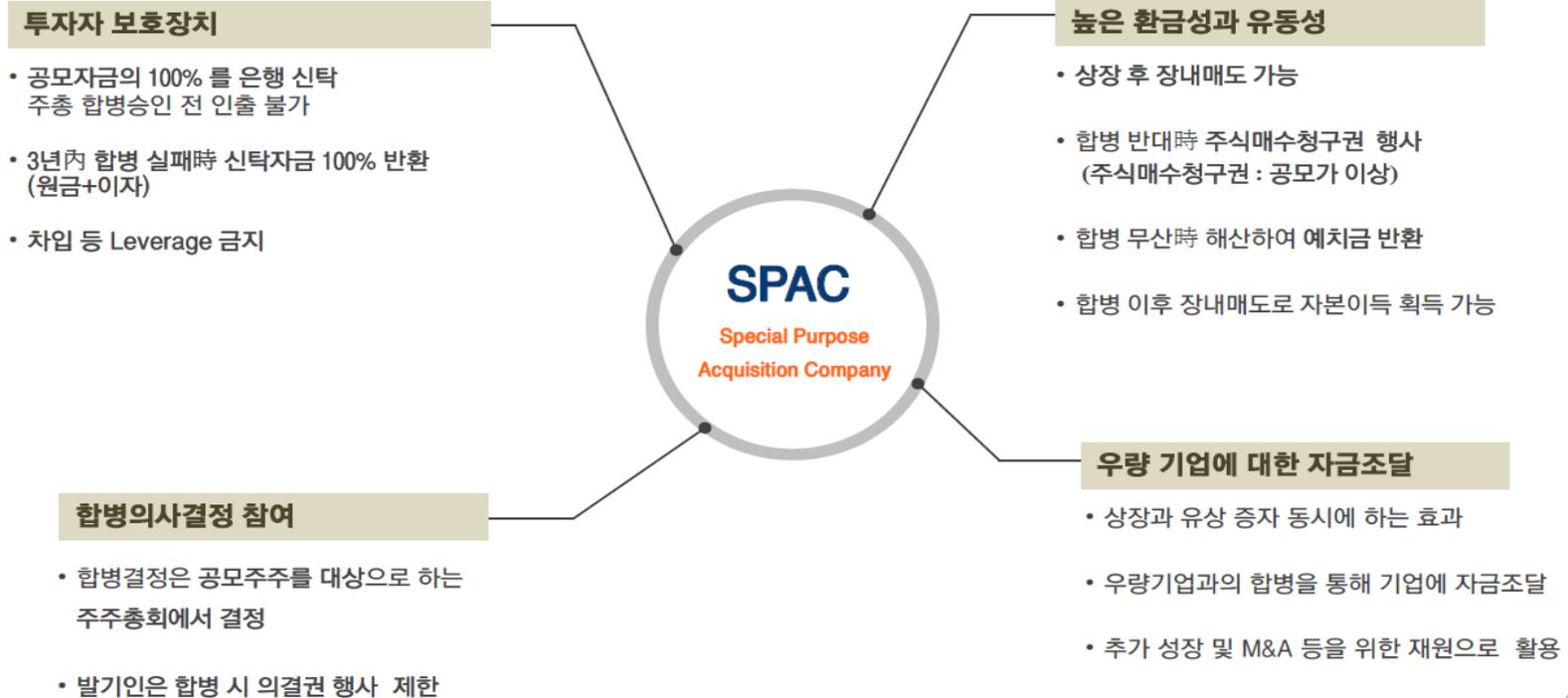
2015년 4월 이후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 법인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합병 발표 지연





3-3. 운용전략 - SPAC

SPAC은 투자자에게 M&A 참여기회 제공 및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 및 정관에 의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3. 운용전략 - KONEX

1. KONEX 시장 현황

- ▶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상장 이전의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기관투자자, 자산가 중심 시장에서 개인, 소액투자자의 접근을 허용
 - 개인투자자는 예약금 잔액이 3억원 → 1억원이상으로 완화
 -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하여 3천만원까지 투자 가능
 - 매매비중 : 개인투자자(74.1%), 기관투자자(13%)
- ▶ 거래소 상장심사는 대폭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
 - 지정자문인 : KONEX 상장기업 발굴, KONEX 기업 재무활동(증자, 채권발행, 코스닥 상장 등)에 대한 자문, 중개, 공시대행 등의 역할을 하는 증권사
- ▶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기업 자금조달 기능이 가시화 되는 등 초기 모험 자본 공급, 회수시장으로 안착
 - 상장기업(개) : ('13.7)21개 → ('15.12)108개 ⇒ IT(45개), 바이오(29개), 금속화학(16개)
 - 시가총액(조원) : ('13.7)0.46조 → ('15.12)3.6조
 - 개장 이후 39개 상장기업이 1,701억원의 자금조달(~'15.12월)
 - * 연도별 실적 : ('13년) 136억 → ('14년) 678억 → ('15년) 886억
- ▶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상장으로 인한 이미지 제고, 우수 인력 채용 등이 경영 전반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 코스닥 이전상장, M&A 등을 통한 회수기회가 확대
 - KONEX시장 개설 이후 2015년까지 14개사가 이전상장했으며 공모가 대비 평균 24%의 수익률을 보임. 2개 기업(닉스테크, 정다운)이 SPAC과 합병을 발표함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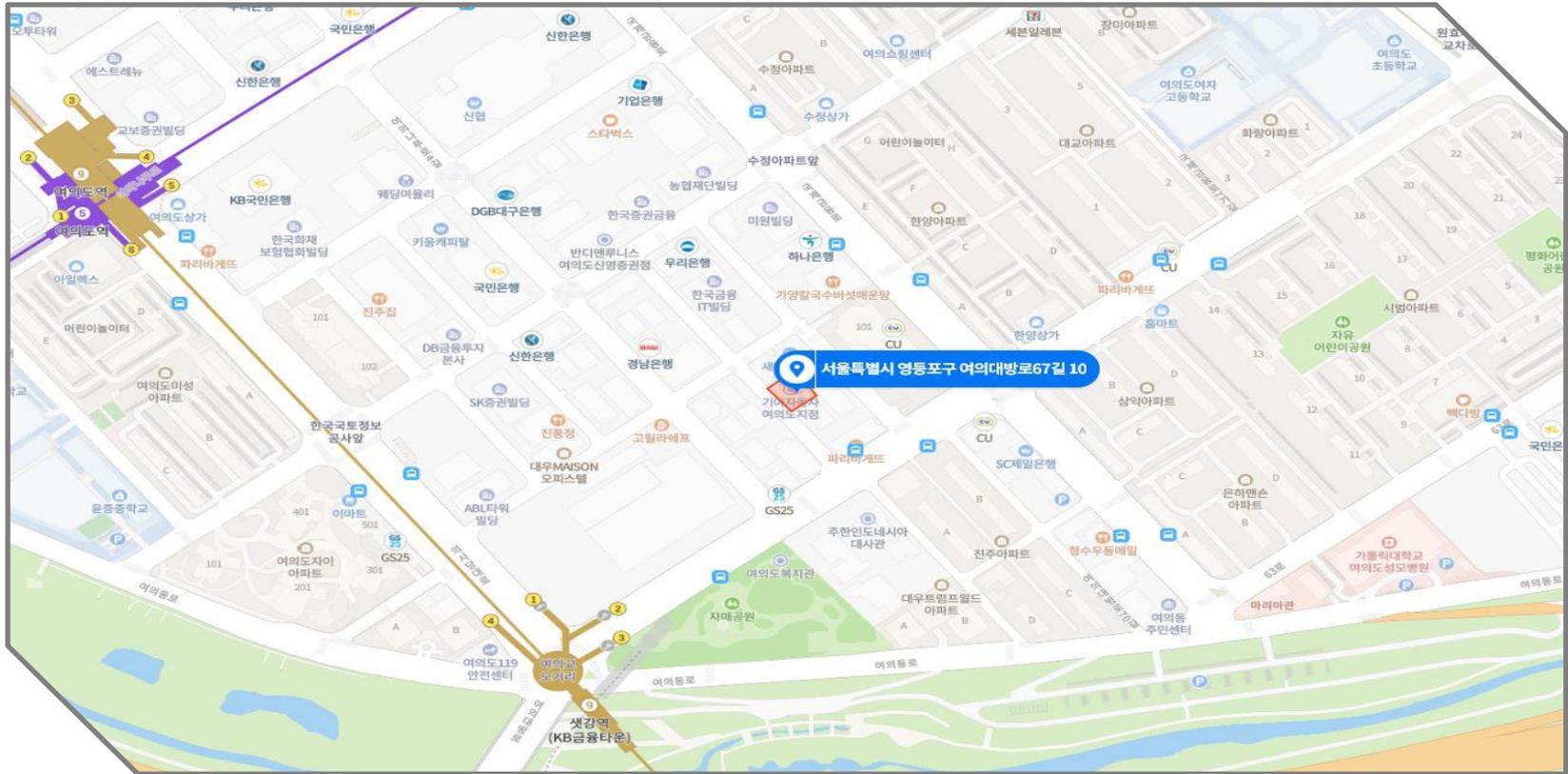


4. 리스크 및 투자 유의사항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투자위험	코넥스 시장은 아직 시장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종목에 따라 거래소나 코스닥에 비해 더 큰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어 시장상황이나 투자대상종목의 재무상황 등에 의하여 급격한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리운 아니합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 프로세스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0, 601호(외교빌딩)
대표전화 : 02-780-8008 FAX : 02-780-5500



(주)리치자산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리서치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SSETMANAGEMENT CO., LTD.